

<총설>

한국의 문화경관, 그 실체,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가치 평가

이창석[†] · 유영한*

서울여자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계열, 서울여자대학교 생태연구소*

적요: 문화경관은 인간의 자연자원이용과 그에 대한 자연의 반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생긴 산물이다. 자연은 인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생존에 필요한 자원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자원도 공급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이 주는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여 문명화를 진전시켜 왔다. 얼마전까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는 조화의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보장받아 왔고, 우리는 문화경관의 존재를 통하여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성장과 그것에 기인한 개발중심의 논리는 지구환경위기, 각종 자원고갈의 위기, 더 나아가 인간의 정신적 빈곤현상까지 몰고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의 전형인 문화경관을 대상으로 그 성립배경과 기능을 검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대로 그 가치를 점검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와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창조하는데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경관의 성립배경을 검토하였고, 생태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것의 효용과 가치 그리고 문화전승의 장으로서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검색어: 문화경관, 생태적 관리, 신경제모델, 자원이용, 지속가능성

서론

경관은 지구표면에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형성하는 관계 체계의 복합체로서 생물, 비생물 그리고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 즉, 경관은 자연과 문화의 복합체이다 (Zonneveld 1995). 이런 점에서 인간사회와 자연은 경관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경관수준의 과정을 추진해가는 두 가지 주된 힘으로 볼 수 있다. 지구의 육상표면 중 2/3는 농경지, 방목지 및 조림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은 경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구나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이루는 생물의 상당한 부분은 이와 같이 인간의 영향을 받은 경관내에 생존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은 지구의 자연과 문화자원의 기본적 참고역할을 하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 된다 (Nakagoshi 1995, Naveh 1998a, 1998b, 1998c).

문화경관은 인간의 활동과 환경 사이의 관계가 생태, 사회·경제 및 문화적 양상을 창조해 온 지리적 지역이고, 종집단의 존재, 분포 및 풍부도를 지배하는 되먹임작용이다 (Farina 2000). 여러 가지 종류의 문화경관이 있으나 모두 역사적으로 본래의 경관조건 및 주어진 시대의 문화와 관계된다.

지난 20여년동안 경제의 국제화는 지구 도처에서 교대로 경관을 변형시킨 새로운 추진력과 교란체제를 낳아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지구는 점점 더 빠르게 자원고갈 및 생물적 빈곤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di Castri 1998, Naveh 1998a). 이러

한 시점에서 지구의 상태에 대한 늘어나는 관심은 인간과 환경의 과정이 상호작용하는 문화경관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되먹임작용의 생태적 중요성을 입증해 왔다 (Nakagoshi 1995, Naveh 1998a, 1998b, 1998c, 이 등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와 경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30여년간 잊고 살아 온 문화경관은 생태와 경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다. 그러한 신모델은 경제의 국제화에 의해 지배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생태적 연구와 혁신적인 경영전략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Farina 2000).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경관은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계승차원에도 검토되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Nakagoshi 1995, 이 등 1999).

심각한 지구환경위기와 자원고갈의 위기에 접근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생태학의 원리가 무시된 경제논리는 점점 그 존재위치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보화 시대라는 초현대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의 행복추구의 욕구를 무시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생물과학협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목적으로 생태학과 경제학의 개념적 접근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그중 하나의 발제자인 Almo Farina의 제안(Farina 2000)에 개념적 배경을 두고 한국의 문화경관의 성립배경, 생태적, 경제적 가치 및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Author for correspondence; Phone: 82-2-970-5666, e-mail: leecs@mail2.swu.ac.kr

문화경관의 구조적 다양성

문화경관은 자연적 구성원, 문화적 구성원 및 경제적 구성원의 세가지 주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Fig. 1, Farina 2000). 자연적 구성원은 주로 인위적 이용을 면한 잔류 자연과 그러한 곳에서 적합한 계절적 서식처를 찾는 동물군집으로 대표된다 (Farina 1997).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비무장지대 인근의 논, 남부지방의 저수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습지 등과 그곳을 찾는 여러 종류의 철새를 그 예로 삼을 수 있겠다. 문화적 구성원은 다양한 인간의 자원이용과 윤리적, 종교적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토지이용과 관계된다. 인간의 생활근거지 주변의 자연에서 획득한 자연소재로 만들어져 지역특성을 살린 여러 가지 생활용품, 당림이나 당산목, 마을 원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적 구성원은 국지적 자원의 다양한 이용과 관계된다. 논과 밭, 그 주변의 생울타리 그리고 연료, 비료, 가축사료, 심지어 인간의 보조식량 등 다양한 임산자원을 제공하는 산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중 지역적, 계절적으로 제한된 자원은 지역경제를 다양화시켜 그들을 지속가능하게 한다. 과거 식량 생산이 크게 부족하던 시절에 주식인 쌀에 더하여 보리와 밀을 비롯한 다양한 발작물을 재배하던 세분화된 경지모자이크, 주거지와 경작지 주변의 생울타리, 땔감림 등에서 다양한 산물의 생산은 구릉지와 산지의 미기후 및 토양특성이 다양함을 반영한다.

문화경관의 산물은 여러 가지 자연자원의 관리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결정자는 문화경관을 단순히 개발된 농경지의 가장 자리에 위치한 잔류 경제체로만 생각하는데, 문화경관은 덜 발달된 나라에서는 경제의 기간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과 스리랑카에서는 여러 종을 심은 과수원이 있는데, 일년 내내 여러 가지 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을 부양하고 있다 (Halladay and Gilmour 1995). 같은 전략이 아마존 유역에서도 관찰되는데 그곳에서는 원주민이 선택적 벌목과 식재료 식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nnett 1992). 우리나라의 농·산촌 일부 지역에서도 아직 송이버섯이나 산나물을 채취하여 얻는 소득이 가계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Lee and Hong 1998).

문화경관은 계급체계상 공간생태계(ecotope)(sensu Zonneveld 1995)라는 소단위로 편제되는데, 그것은 문화경관의 구조적 토대를 이룬다. 이들 미소계의 연쇄적 결합(mesochores, macrochores, and megachores, sensu Zonneveld 1995)은 수 미터 내지 수 킬로미터의 축적으로 관찰되는 복합체로서의 경관을 낳는다.

우리 나라의 농촌경관을 예로 들면, 하천, 범람림, 강변림, 논, 밭, 주거지, 생울타리, 마을원림, 당산림, 산자락의 계단식 논과 밭, 땔감림, 자연림 등이 어떤 지역의 저지대로부터 고지대로 향한 경관요소, 즉 공간생태계의 분포가 된다 (Lee and Kim 2000). 그러나 근래 빠른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변화는 그중 여러 요소(강변림, 생울타리, 마을원림, 당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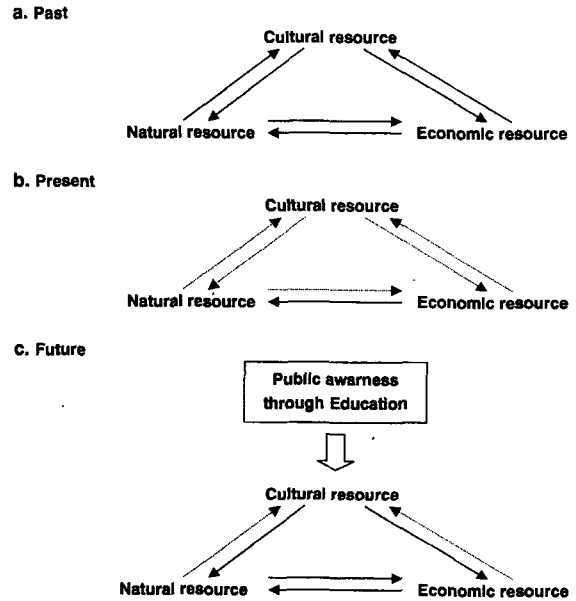


Fig. 1. Relationships between natural, cultural, and economic capitals based on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scenarios. Dotted arrows indicate weak connections between the processes. a. In the past, when cultural landscape was dominant, each type of capital interacted with the others by feedback mechanisms. b. In the present, cultural capital is connected only weakly with the two other types of capital. Economic capital influences the natural capital without feedbacks. c. In the future scenario, once the public is educated about the unsustainability of the present development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nd natural capitals is restored(modified from Farina 2000).

계단식 논과 밭, 땔감림)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그 대신 대형 과수원, 도시경관에서 볼 수 있는 기질(matrix)상태의 개발지, 인공소재화된 주거지나 마을정자 등이 새로운 경관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경관도 유사한 경관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경관과 비교하여 경작지 면적의 현저한 감소, 하천주변 경관요소의 소실, 주거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개발지의 기질상태화 등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특히 경관요소가 크게 단순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Lee et al. 2000).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경관은 그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다. 즉, 농촌경관 역시 도시경관과 유사하게 단순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경향이다 (Lee et al. 2001).

문화경관의 기능적 다양성

문화경관의 실질부분은 이질적인 농경지인데, 그곳에서 작물의 경작과 경영은 주로 토양특성, 미기후 및 경제적 여건의 상호관계에 기초한다. 문화경관에서 경작은 경지 및 잔류 산림의 크기와 공간배열을 조절하는 기본 활동이다. 물의 흐름이나

토양의 염류순환이 추이대 및 완충지역으로 작용하는 생물타리의 존재에 의해 유지되고 조절된다. 바람의 작용은 방풍림을 조성하여 감소시킨다. 급경사지의 계단식 경작은 평평한 경지를 공급하여 경사지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토양침식을 줄이고, 물과 영양염류의 소실을 감소시킨다. 자연요소인 자연적인 개활지와 잔류산림은 동물군집의 서식에 도움이 되는 연결성(connectivity)을 높게 한다. 이러한 문화경관의 생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Nakagoshi 1995, Naveh 1998a, 1998b, 1998c, 이 등 1999, Farina 2000).

- 생산과정과 자연환경 특성이 조화를 이룬 공간생태계
- 자연적 과정과 인위적 과정이 서로 되먹임효과 발휘
- 인간의 교란체제가 환경의 회복능력 유도
- 토지모자이크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경관유형 유지
- 경관의 과정, 영양염류와 생물의 유입, 연결성 및 생태적 기질의 자기편제 특성 유지

한국 문화경관의 성립배경

문화경관은 넓은 의미로 어떤 경관에서 인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간섭과 이에 대한 자연의 반응이 균형을 이룬 부분의 경관요소만을 문화경관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과거 에너지원이 화석연료로 바뀌기 전에 뿔나무, 유기질 비료, 가축의 사료 등을 얻기 위해 인간이 자주 이용하던 뒷동산 정도가 전형적인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경관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성립배경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문화경관요소를 제외하고 이러한 좁은 의미의 문화경관을 대상으로 그 성립배경과 유지기작을 검토하고자 한다.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난방, 요리 등 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주로 산림에 의존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화학비료의 공급 또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기농의 형태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농업을 위한 퇴비나 가축의 먹이 채취도 주로 산림에 의존하였다. 그밖에도 인간은 주거지를 비롯하여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많은 자원을 산림으로부터 획득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까이 위치한 산림은 당연히 인간의 생활의 장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한 인간의 간섭은 이러한 산림에서 천이의 진행을 억제하며 문화경관이라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적 공간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립된 문화경관은 계속되는 인간활동과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그것의 독특한 체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로부터 문화경관 성립의 배경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우선 사람들은 그들의 주거공간을 꾸미기 위한 소재를 산림으로부터 얻어 왔다. 가옥의 구조적 틀을 이루는 기둥, 대들보, 서까래, 문틀, 문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벽면의 내부

와 지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부분을 이루는 소재를 산림으로부터 가져 왔다. 이러한 소재를 얻는 과정에서 인간은 산림을 교란시켰는데, 특히 이러한 소재를 얻는 교란은 후술하는 다른 교란과 비교하여 대규모 교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연료의 획득과 관련하여 인간의 산림이용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땔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에서 터득한 지혜는 큰 나무보다는 임상식물과 낙엽을 주 재료로 이용하게 하였다. 낙엽을 채취할 때는 그 채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상식물을 절단한 후 갈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그들을 긁어 모으는 형태를 취하였다. 따라서 언제나 임상을 밝게 유지하여 문화경관을 이루는 양수림의 성립과 유지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함은 물론 여러 가지 화초류도 번성할 수 있게 하였다 (Nakagoshi 1995, Naveh 1998a, 1998b, 1998c, 이 등 1999). 이와 같이 관리되는 숲은 건조한 지소의 경우 소나무림, 적습한 지소의 경우 상수리나무림이나 밤나무림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숲의 바닥에는 진달래, 철쭉꽃, 산철쭉, 양지꽃, 붓꽃, 할미꽃, 원추리, 나리 등 꽃이 아름다운 식물을 보유하였다. 소나무는 고려시대 이후 철저히 보호되어 왔고, 종자생산이 많고 풍년주기가 없으며, 강우의 불균등 분포와 거친 토양입자에서 야기되는 건조에 대한 내성 등 인위적, 자연적 호조건으로 우리나라 문화경관의 대표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이 1989, 1997). 상수리나무는 열매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생 참나무 중 졸참나무와 함께 가장 많은 종자를 생산한다. 그런데 성장속도, 교란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종자의 충실도가 높은 상수리나무림이 일반적으로 더 번성하고 인가에도 가까이 위치한다 (이 1998). 그 낙엽은 중요한 연료원이 되고, 때로는 그 줄기가 자체로 또는 숲으로 바뀐 상태에서 연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밤나무는 상수리나무만큼 순림을 형성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것의 열매가 주는 가치 때문에 문화경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 열매는 우리가 널리 애용해 왔고 낙엽 또한 중요한 연료자원으로 이용되어 왔다. 임상식물은 다른 숲에서와 마찬가지로 낙엽을 채취할 때 제거되고 열매를 채취할 때도 제거되어 역시 밝은 임상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문화경관에서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생활 및 농업용 도구의 보조재, 가축사료, 퇴비용 자원 등을 채취해 왔다. 가축사료용으로는 억새를 비롯한 벼과 식물, 칩 등이 많이 이용되어 왔는데, 이들은 교란된 지소에 순군락을 이루는 전형적 식물이다. 이러한 사실을 터득했던 농촌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임산물을 채취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나지 또는 밝은 임상이 형성된 곳에서 다시 가축의 먹이를 채취하며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용 과정에서 초지와 같이 최소한의 자연을 남겨 자연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는 지혜 또한 발휘하였다. 한편, 퇴비용 유기물로는 볏짚, 보릿짚, 밀짚같은 작물의 줄기가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이들 중 많은 양이 가축의 먹이나 연료로 활용되어 그외에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논둑이나 밭둑에 난 풀을 베어 확보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많은 양을 상기한 문화경관의 임상에 나는

참나무류의 맹아나 그밖의 임상식물을 채취하여 보충하였다. 이렇게 임상을 정리하여 밝아진 임상은 앞서 언급한 화초류의 번성을 가져와 꿀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여러 가지 산나물의 생육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은 이들을 이용하는 지혜도 발휘하였다 (이 등 1999).

이와 같이 인간의 활동과 그에 대한 자연의 반응으로 성립된 문화경관은 과거에도 오늘날과 다름없이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통해 인간의 생존환경을 지켜왔음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자원을 공급하며 인간의 생활과 함께 해 왔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구조적, 기능적 쇠퇴를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이용의 모순을 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여 그것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Nakagoshi 1995, Naveh 1998a, 1998b, 1998c). 이런 점에서 문화경관은 인간활동과 그것에 의해 야기된 환경변화가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요 환경인자로 등장하여 그 존립을 위협하고, 자원고갈의 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시점에서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지침으로서 그 체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Nakagoshi 1995, Naveh 1998a, 1998b, 1998c, Farina 2000).

문화경관의 속성

교란은 문화경관을 유발하는 근본과정이다. 즉, 문화경관은 자연력(바람, 비, 천이 등)과 인간활동(농업, 임업, 가축 사육 등)의 산물이다. 이러한 과정은 문화경관이 가진 두가지 속성, 연약성(fragility)과 회복능력(resilience)에 영향을 미친다. 연약성은 어떤 생태계가 교란의 결과 그것의 조성과 구조의 변화가 얼마나 쉽게 나타나는가의 정도를 말하고, 어떤 생태계나 경관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Nilsson and Grelsson 1995). 연약성은 생태계내에서 나타나는 종과 과정의 변화율을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평가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Farina 2000). 문화경관의 측면에서도 연약성은 문화와 경제의 다양성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회복능력은 어떤 계가 교란 후 그것의 원상태를 회복하는 능력이다 (Odum 1993, Holling 1992, Peterson *et al.* 1998). 일반적으로 어떤 계의 회복능력의 정도는 그 계의 건강상태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Rapport *et al.* 1998). 문화경관은 건강하고 교란으로부터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보다 이른 천이단계의 식생이 늦은 천이단계의 식생보다 교란으로부터 빨리 회복하는 사실로 설명이 가능하다 (Pickett and White 1985, 이 1995). 한편, 오랜 인간간섭의 역사를 가진 지중해지방의 저지분지에 성립된 초지는 지중식물과 포복성 잎을 가진 식물 등이 중심이 된 식생형을 문화경관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인간에 의해 교란된 지역으로부터 먼 교란되지 않은 자연생태계보다 외래종의 침입과 과방목에 더 강한 내성을 보인 예도 있다 (Perevolotsky and Seligman 1998).

문화경관의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은 주변에 잔류하고 있는 자연경관 파편에서 보다 문화경관에서 종종 더 높다 (Naveh 1998b, Blondel and Haronson 1999). 높은 생물다양성은 주로 인위적 교란체계와 자연적 교란체계가 조합되어 야기된 경관의 이질성 및 이러한 체계에 의해 유용해진 여러 가지 자원의 유용성에서 비롯된다 (Tilman 1999, Farina 2000). 더욱이 문화경관의 성립이 교란에 기초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높은 생물다양성은 중간교란가설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Connell 1978). 실제로 문화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에서는 다양한 임상식물의 회복과 그것에 의존하는 동물의 유입에 기인한 생물다양성의 증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등 1999).

같은 지방에 오랫동안 살아 온 사람들은 자연자원의 빠른 감소를 막기 위하여 그것에 적합한 관리전략을 개발해 왔다. 그러한 전략은 자연자원을 적절히 관리하여 그들을 지속시키고 갱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인간활동에 의한 자원의 감소는 생물의 멸종과 몇가지 문화의 쇠퇴를 가져오나 더 종종 인간사회는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관리를 통하여 매우 다양화된 생태적 계를 창조해 왔다 (Naveh 1994, 1998b). 이런 점에서 문화경관은 생물다양성의 창고이자 인간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의 지혜가 결집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 (Nakagoshi 1995, Naveh 1998a, 1998b, 1998c, 이 등 1999).

문화 전승의 장으로서의 문화경관과 그 활용을 위한 제안

지난 30여년 동안 인구의 이동과 자원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문화경관에 의해 만들어진 경관유형은 많은 지방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한 유형의 유지는 수세기에 걸쳐 자원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어 온 데 기인한다 (Farina 2000). 이탈리아 로마의 "centrione"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문화경관의 좋은 예로 알려져 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보편적이었던 이러한 경관에서 그 둘레가 정해진 하나의 계로서의 들판은 한쌍의 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계획되었다 (Caravello and Giacomini 1993). 수세기에 걸쳐 이러한 구역의 복합기능을 유지함으로써 centrione은 자연적 과정과 인위적 과정 사이의 모순을 줄여 왔다. 생태적 안목에 기초하여 계획된 이러한 농촌경관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구조가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토지이용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사실, centriones의 내부시설(수로와 도로)은 최근까지 사용되었고 더구나 이러한 경관은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Farina 2000).

문화는 사람이 살아 온 발자취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것의 교육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Nakagoshi 1995, Naveh 1998a, 1998b, 1998c). 이와 같이 문화를 중요한 교육의 도구로 삼는 것은 과

거의 연구성과에 기초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성과를 쌓아 가고자 하는 과학의 기본적인 연구방법론에도 자리잡고 있다 (Kimball 1997).

우리 나라 역시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문화재를 철저히 관리해 오며 그것을 교육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 관리와 그에 대한 교육에는 조상의 얼을 계승하여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자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생활모습, 즉 문화는 자연환경에 지배되거나 그것과의 타협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화의 성립은 그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인간활동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성립된 문화경관은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재 관리의 사고에는 이러한 생태적 인식이 반영되지 않아 관리의 공간범위를 인공구조물과 그 인근에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공의 구조물은 모두 그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소재를 얻고 발상을 얻어 성립된 것이다. 즉, 그 토대가 되었던 것은 물질적 차원이나 정신적 차원 모두에서 그 주변의 자연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재 관리는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문화전승의 진정한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장소를 명승고적으로 삼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하나의 예로 삼을 수 있고, 또 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태관광, 주말농장 등의 프로그램에도 전통문화 체험을 중요한 주제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그 핵심을 비껴가는 인상이다. 수학여행의 경우를 보자. 대부분의 경우 어떤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면 협의의 문화유적만을 감상하고 그 성립의 배경이 되는 주변 경관에 대한 답사나 감상은 거의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견학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여 진정한 의미의 문화전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태관광이나 주말농장의 운영체제 또한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시도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들이 생태관광단지로 설계하는 농·산촌의 모습은 문화전승을 기대할 수 있는 문화경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주말농장의 경작형태나 재배작물의 종류 또한 우리의 문화경관을 가져 오게 한 방식이나 품종을 크게 벗어나는 형태이어서 그러한 기대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문명화가 크게 후퇴한 옛날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데는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의 위기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인식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사라져가는 민족문화계승이라는 정신적 측면의 문제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몇몇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형이며 문화전승의 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문화경관을 담아내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농현상 등으로 야기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곳에

서 그러한 문화경관을 담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그러한 실천이 가능한 몇 군데를 검토해 보았다. 용인 민속촌, 안동 하회마을, 제주도의 표선 지역 등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삼고 싶다. 이들 지역은 그 동안 우리의 옛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 그러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문화계승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장소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인간의 주거지내 생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 배경을 이룬 문화경관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문화전승을 기대하고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문화경관의 보충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도 생태학자의 현실세계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더하여 또 하나의 대상으로 전국에 산재하는 각종 생활환경보전림의 맥을 잇는 것을 권하고 싶다. 산림청·임업연구원(1996)에서는 이러한 취지로 전국 생활환경보전림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바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그것의 본 모습을 상실하며 쇠퇴해가는 실정에 있다. 지금 그것을 토대로 삼고 그것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한 인간의 보수가 뒷받침된다면 그들은 귀중한 문화자원으로 우리 앞에 재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생태, 문화, 그리고 경제의 개념이 조합된 이들 문화경관의 종합적 가치를 고려하면, 이는 정보화 시대에도 하나의 귀중한 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여러 문화경관이 최근 세계문화유산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경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생태적 자료는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경관이 생태연구의 주제로 인기가 없었음을 반영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생태학 연구의 대부분은 인간간섭이 배제된 곳에서 이루어졌다.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자연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의 보호가 지난 수십년 동안 주된 보존전략이었고, 간섭받지 않은 자연의 신봉이 인간활동에 의해 지배되고 모양이 갖추어진 "현실세계"의 보호나 연구를 외면하게 하였다. 그러나 근래 자원 감소라는 도전과 인간 삶의 질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호지역 밖, 즉 문화경관과 인간활동에 의해 변화된 다른 계에서의 생태학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Halladay and Gilmour 1995).

문화경관의 경제적 검토

문화경관의 경제는 현재 국제경제보다 그 중요성이 크게 떨어진다. 새로운 생산과 마케팅 전략으로 사회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는 국제경제의 대응능력은 지역경제 위기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경제체제하의 대규모 생산농업에서 작물생산은 전문화하고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통폐이며, 생산품목의 결정도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공업과 같은 농업생산체제의 채택은 농부들에게 동적 국제시장의 변화무쌍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잠재적으로 수명이 짧은 하이테크 체제에 많은

투자를 강요해 왔다. 그리고 생산품은 더 유리한 기어나 시장예보에 반응하여 이리저리 이동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모델에서 “경제경관”은 국제적 규모에 걸쳐 있다. 이 규모에서 효과적인 경관모자이크는 아대륙 수준의 거대지방으로 이루어지고 시장동태에 기인한 토지모자이크는 아대륙 규모에서 국제규모로 교체될 수 있다. 작물의 질과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 새로 창조된 경관은 대형 단종재배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지형, 수계, 삼림, 원충지 및 연결성과 회복능력 같은 생태적 과정 등의 자연적 유형은 단순해진다. 따라서 경제의 국제화는 새로운 경제기질(economic matrix)을 낳았고 경제적으로 추진된 새로운 경관을 낳았는데, 그러한 체제에서 토지이용과 사회·경제 모자이크의 기본규모는 경제적 영향규모에 비례하여 커졌다. 이러한 새로운 토지관리체제는 그러한 체제내에서 경제적 변화의 시간규모가 생태적 적응의 발달과 환경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에 요구되는 시간규모보다 짧아 생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생태적, 생물적 다양성을 빈약하게 한다 (Naveh 1998c, Farina 2000).

대조적으로 문화경관에서의 경제적 선택은 그러한 선택에 대한 자연의 반응에 기초한 되먹임체제에 의해 조절되었다. 문화경관을 낳는데 걸린 긴 시간은 식물과 동물들이 인간의 새로운 교란체제에 적응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경관에서 국지적 조건은 국제경제 체제하의 “현대적 경관”에서 보다 생산지를 덜 자주 교체하게 한다. 문화경관의 대부분의 생산체제에서는 지역주민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모델을 개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같은 생태적 위기를 피하려고 한다. 문화경관은 대량생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품목의 양을 지역시장을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조절한다. 문화경관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지만, 전체 생산량은 적어 대규모 인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Farina 2000). 많은 지방에서 이 모델은 인간사회가 점점 많은 양의 농업생산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도시지역으로 중심이동됨에 따라 퇴화되었다. 문화경관은 인구밀도가 낮은 고립된 지역에만 남아 있고, 덜 발달된 지역 또는 몇몇 저개발국에서만 주된 역할을 한다. 여러 해동안 문화경관 모델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해 왔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0여년 동안 방치되어 그 기능이 단순해졌고 문화경관 모자이크의 전형적인 유형이 파괴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울타리, 소규모 들판, 작물과 가축의 지역 품종 등이 사라졌다. 사실 문화경관의 장점은 야생종과 재배종의 교체를 보장하고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유지하며 인간의 보조하에서 토지모자이크의 자발적 재편제를 보장하는 문화적으로 추진된 유형과 과정의 오랜 기간에 걸친 유지에 기초한다.

우리 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고 얼마 전까지 쌀생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지금은 탈러대 원화가치의 비, 주식가격 등이 대신하는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역할을 쌀값이 대신한 적도 있었다. 오늘날도 쌀은 여전히 우리의 주식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크게 감소되었고, 그것의 기능 또한 크게 후퇴하였다. 국제경제의 논리에서 보면 이러한

논을 공업단지로 개발하여 컴퓨터나 자동차를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보다 경제성이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로 생산품목을 전환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린 후 그것으로 쌀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실제상황으로 가정하고 식량이 부족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1970년대 국제원유가가 급등하였을 때 느꼈던 위기의식이나 그것의 변동에 따라 울고 웃는 오늘날의 경제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경관의 위치는 이와 같이 그 규모는 작지만 어떤 지역의 기초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경제의 논리는 모든 산업의 전문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문화경관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이다 (Nakagoshi 1995, Naveh 1998a, 1998b, 1998c, Farina 200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러한 시각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가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근교에서 논이 이용전환에 관한 것을 하나의 예로 삼을 수 있다 (Lee et al. 2001). 논은 쌀생산에 더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 육상으로부터 수계환경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조절하는 기능, 그리고 그곳에 의존하는 많은 생물을 보유하는 생물다양성 유지기능 등을 갖춰 대표적인 문화경관의 역할을 한다 (Elphick 2000). 그러나 오늘날 도시 근교의 논은 대부분 시설농업의 형태로 토지이용형태를 바꾸었다. 재배하는 작물도 채소, 과일, 화훼 등으로 바뀌어 이전의 논과는 크게 다른 구조와 기능을 가진 토지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보이는 경제측면에서 얼마간의 이득을 기록하였을 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생태적 기능의 상실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경제측면에서는 그보다 더 큰 손실을 유발하였을 지도 모른다. 대도시 주변의 홍수피해, 수질오염, 생물상의 빈곤, 이삭기후 징후 등이 이러한 손실을 대변해 준다.

이보다 더 심한 또 다른 예도 있다. 준농림지역 개발규제완화로 불어닥친 토지이용전환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이것은 비생산적인 위락시설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전환하여 이미 엄청난 악영향을 가져 왔고, 앞으로 환경문제와 함께 사회문제까지 합쳐져 악영향의 상승효과를 유발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제적 기능외에 문화경관의 다양한 역할과 그것에 기초한 그것의 가치진단을 재검토할 볼 필요가 있겠다 (Nakagoshi 1995, Naveh 1998a, 1998b, 1998c).

현대경관과 문화경관의 생태

국제경제가 낳은 현대의 기술경관(Naveh and Lieberman 1994)은 많은 점에서 문화경관과 다르다. 현대의 경관에서 경제적 결정은 대개 생태적 과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생태적 요소를 무시한 새로운 기술계를 낳는데, 그것은 생태적으로 취약하여 공기와 물의 오염, 외래종의 침입 및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낳는다. 다시 말해 모자이크의 구조는 자연적 과정과 되먹임이 없이 경제적 정책에 의해 지배된다 (Fig. 1). 자연교란은 자연계의 회복능력을 위축시키는 기술

에 의해 일부 조정되지만 이러한 기술은 환경교란에 대응하는 그들의 능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홍수와 산사태가 그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보다 강력할 때 이러한 자연적 과정은 환경의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개발의 위험성은 자연계가 국제경제가 만들어 낸 교란체제에 반응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느린데 있다. 교란에 대한 인간과 자연계의 반응에서 시간적 규모의 차이는 자연계의 질을 떨어뜨려 후속되는 교란에 더 예민하게 한다. 따라서 현대의 경관에서 진정한 경제적 균형은 식량생산으로부터의 순수 소득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생태적 비용과 혜택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비용과 혜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연의 감소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제공되는 생태적 역할의 소실까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Costanza 1996, Naveh 1998c). 사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잔존 문화경관은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Naveh 1994).

문화경관 복원의 예와 그 효과

경제적 관점으로 문화경관을 보는 출발점은 문화경관의 경관모자이크가 오랜기간에 걸쳐 인간의 무리없는 이용과 그것에 대한 자연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산물이며, 인간사회가 작물생산 뿐만 아니라 환경의 건전성 및 삶의 질 측면에서 최대의 지속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태적 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Rapport et al. 1998). 따라서 문화경관과 현대경관 둘다에서 모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생태계의 혜택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증하기 위한 전략과 결부시켜 고려하여야 한다 (Wilson and Carpenter 1999).

경제와 생태를 통합하고자 할 때 그러한 개념적 틀을 바꾸기 위해 전체계의 성격을 바꾸는 능력을 가진 자연 및 인간 관련 스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Costanza 1996). 자연적 스위치로는 대홍수, 불, 엘니뇨 등을 들 수 있고, 인간관련 스위치로는 갑작스런 화폐의 평가절하, 초인플레이션, 컴퓨터 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인간에 의해 야기된 스위치 중 특이한 예로서 최근에 토지의 방치에 의해 환경의 동태가 변화된 이탈리아의 Apenines 산맥을 들 수 있다 (Farina 1991). 경작이 중지된 고지대 농경지는 잡목림으로 재생되어 그들이 연속된 식생조각(patch)이 우점하는 단순화된 토지모자이크의 발달을 가져왔는데, 그곳은 생물다양성이 빈약하고 불에도 예민하다. Apenines 산맥 도처에는 이러한 폐경지가 넓게 분포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통된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하나의 경제활동으로서 벌목을 재개하였는데, 그것이 폐경지의 재생에서 비롯된 연속된 잡목림 조각을 단편화시켜 불의 위험을 감소시켰다. 이 경우의 스위치는 일용품의 생산을 위해 임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스위치는 어떤 토지이용계획 규제 또는 보

호전략보다 불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Farina 2000).

영국의 경우는 생물다양성 보전, 펄프용재나 정원자재 등 자원생산의 장으로서 문화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레크리에이션 장소, 자연 및 문화체험의 장소, 생물다양성 확보의 장소로서 문화경관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행하며 효과적 관리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생태학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 등 1999).

이러한 스위치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문화경관의 많은 과정이 그러한 스위치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생태연구의 중요한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통합되어 새롭게 탄생된 지속가능한 관리대책은 현존하는 문화경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여 발견할 수 있다.

문화경관의 효용과 기능

자급자족형 또는 물물교환 수준의 소규모 농업생산물 얻기 위한 기반이나 뿔나무, 농업용자재, 유기질 비료 등을 얻기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은 잃었지만 문화경관의 다양한 기능과 효과는 변화가 없다. 도시화의 진전과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자원고갈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 중요성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Nakagoshi 1995, Naveh 1998a, 1998b, 1998c, 이 등 1999).

그것의 첫번째 기능은 환경보전기능이다. CO₂의 흡수, 대기의 정화, 열섬화하는 도시기온의 조절, 빗물의 비축, 토사유출이나 산사태의 방지 등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통하여 문화경관은 인간의 생활을 지키고 있다.

두번째 기능은 공공녹지 기능을 들 수 있다. 새로운 땅에 숲을 창조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기존의 문화경관을 이루는 숲은 이러한 기능을 대신한다. 더구나 새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의 녹지와 달리 이들은 다양한 식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낙엽을 분해하는 토양미생물, 곤충, 야생동물, 조류 등이 함께하는 복잡하고 안정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장소는 최적의 자연회귀, 환경교육,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장소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기능은 문화경관의 생산기능이다. 오늘날 세계는 산림자원의 고갈과 석유공급의 불안을 안고 있고,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던 문화경관의 체제와 그것의 생산잠재력은 실제적 이용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네번째 기능은 생물다양성 보존기능을 들 수 있다. 문화경관은 인간의 간섭과 자연의 회복력이 조화를 이룬 장으로서 하나의 추이대(ecotone)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환경에는 그 환경에 적응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문화경관이 도시적 환경으로 편입되거나 자연으로 회귀하여 사라지면서 그곳에 서식기반을 삼았던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문화경관의 한 요소인 마을 뒷동산에서 그곳의 양호한

광조건을 이용하여 살아가던 꽃이 아름다운 초본류와 관목류가 사라지고, 토종 농림축산 품종이 사라지는 것은 이러한 문화경관의 소실에 기인한다.

결 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 뿐만 아니라 잘 보존된 자연계도 필요하다. 더구나 이러한 자연계가 손상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의 되먹임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화경관 모델은 건강한 사회와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창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이 형성되는데 여러 세기가 걸린 문화경관을 산업혁명 이후의 정보화 시대에 유지하고 재창조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순진하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관모델에 포함된 개념은 안락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이루기 위한 환경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과정을 안내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Fig. 1).

사실 현행 국제경제 모델이 얼마나 오래 동안 지속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구라는 전체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더구나 생태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대규모 경제 모델의 예는 거의 없다.

과거에 경제자본과 자연경관자본 사이의 관계는 문화자본에 의해 조절되었고, 그러한 상호작용은 문화경관을 낳았다. 현재의 국제경관은 경제자본에 의해 지배되는데, 그것은 자연자본을 에너지 또는 생물량의 구성원으로만 생각한다. 두 구성원 사이의 필터로서 문화적 구성원의 역할은 무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필터(더 효율적인 교육도구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공공인식을 늘리기 위한 전략)는 그 경관을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정할 목적으로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스위치를 조절하기 위해 미래에 널리 사용될 것이다 (Fig. 1).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투자가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관을 가져 올 것이다. 농경자원의 더 다양한 사용은 산업적 농업에서 강력하게 장려해 온 단종재배의 영향을 줄일 것이다. 공간생태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현재의 재배 작물보다 식물성 병원균에 대한 보호가 덜 필요한 국지적(공간생태계에 기초한) 작물을 이용하고 유지할 수 있다. 국제시장의 확장은 경관의 구조적 기본단위와 공간규모의 확장을 가져 온다. 문화경관 모델을 적용하면 작물생산의 측면에서만 작용하여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것의 능력을 잃은 무작위 경관모자이크가 형성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화경관은 핵심적 환경요인이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고려대상에 포함되고, 그 역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문화경관이라는 사회·경제적 지침을 사용하여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의 측면에서 인간이 우세한 경관을 재편제하는 흥미있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다 (Green 1996). 문화경관 모델은 환경의 파괴를 줄이고 그

것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환경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개발이 환경적응의 능력을 추월하고 환경의 훼손이 회복불가능한 경우에 특히 그렇다. 미래의 경관은 그들의 규모가 어떻든간에 생태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이해가 함께 작용하는 통합적 접근에 따라 편제되어야 하고 이 경우 경관생태학의 원리를 그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Farina 1998, Forman and Gordon 1986, Harber 1990, Naveh and Lieberman 1994, Zonneveld 1995). 이러한 원리는 생태적 계의 기능성을 보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경관을 연구, 해석, 제안, 관리하며 동시에 적당한 속도로 그것의 문화, 경제, 그리고 사회적 모델을 변화시키는 세계에 합당한 경제개발을 보장하는 새로운 지침과 도구를 제공한다.

인용문헌

- 산림청, 임업연구원. 1996. 전통 생활환경보전림. 산림청, 임업연구원, 서울. 361p.
- 이창석. 1989. 솔잎혹파리 피해 소나무림의 천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106p.
- 이창석. 1995. 삼림생태계의 교란과 그 재생. 김준호 (편저). 고급생태학. 교문사, 서울. pp. 385-423.
- 이창석. 1997. 대기오염과 토양산성화에 의한 식물의 수분스트레스 상승 효과. 1997 한국생태학회 동계심포지움 Proceedings. pp. 48-68.
- 이창석. 1998. 충주·제천의 자연. pp. 141-177. 환경부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보고서, 서울.
- 이창석, 홍선기, 조현재, 오종민 역. 1999. 자연환경 복원의 기술. 동화기술, 서울.
- Bennett, B.C. 1992. Plants and people of the Amazonian rainforests. *BioScience* 42: 599-607.
- Blondel, J. and J. Haronson. 1999. Ecology and wildlife of the Mediterranean reg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Caravello, G.U. and F. Giacomini. 1993. Landscape ecology and aspects in a territory centuriated in Roman tim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4: 77-85.
- Connell, J.H. 1978. Diversity in tropical rainforests and coral reefs. *Science* 199: 1302-1310.
- Costanza, R. 1996. Ecological economics: Reintegrating the study of humans and nature. *Ecological Applications* 6: 978-990.
- di Castri, F. 1998. Ecology in a global economy. In B. Gopal, P.S. Pathak, and K.G. Saxena(eds.). *Ecology Today: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Ecological Research*. New Delhi(India): International Publications. pp. 1-17.
- Elphick, C.S. 2000. Functional equivalency between rice fields and seminatural wetland habitats. *Conservation Biology* 14: 181-191.
- Farina, A. 1991. Recent changes of the mosaic patterns in a moun-

- tain landscape(north Italy) and consequences on vertebrate fauna. *Options Mediterranees* 15: 121-134.
- Farina, A. 1997. Landscape structure and breeding bird distribution in a sub-Mediterranean agro-ecosystem. *Landscape Ecology* 12: 265-278.
- Farina, A. 1998. *Principles and Methods in Landscape Ecology*. Chapman and Hall, London. 235p.
- Farina, A. 2000. The cultural landscape as a model for the integration of ecology and economics. *BioScience* 50(4): 313-320.
- Forman, R.T.T. and M. Gordron. 1986. *Landscape Ecology*. Wiley and Sons, New York.
- Green, B. 1996. *Countryside Conservation*. Chapman and Hall, London.
- Halladay, P. and D.A. Gilmour. 1995. *Conserving Biodiversity Outside Protected Areas: The Role of Traditional Agro-ecosystems*. Gland (Switzerland): IUCN-The world Conservation Union.
- Harber, W. 1990. Using landscape ecology in planning and management. In I.S. Zonneveld and R.T.T. Forman,(eds.). *Changing landscapes: An Ecological Perspectives*. Springer-Verlag, New York. pp. 217-232.
- Holling, C.S. 1992. Cross-scale morphology, geometry, and dynamics of ecosystems. *Ecological Monographs* 62: 447-502.
- Kimball, 1997. *Biology*. 6th ed. Addison-Wesley Pub. Co., Munchen.
- Lee, C.S., A.N. Lee and Y.H. You. 2001. Landscape structure and relationship between water quality and land use pattern in the watershed of the Wangsuk river in Gyunggi-do, Korea. *Korean J. Ecol.* 24(4): 253-258.
- Lee, C.S. and J.E. Kim. 2001. Landscape structure and change in 3 rural areas with different land-use patterns.(In Preparation.).
- Lee, C.S. and S.K. Hong. 1998. Changes of landscape pattern and vegetation structure in rural area disturbed by fire. *Korean J. Ecol.* 21(4): 389-399.
- Lee, C.S., S.K. Hong, Y.H. You, J.E. Kim and J.S. Mun. 2000. Landscape structure in the green-belt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Korea. *Proceedings IAVS Symposium*: 230-233.
- Nakagoshi, N. 1995. Changing cultural landscape in Japan. In B. von Droste, H. Plachter, and M. Rossler,(eds.). *Cultural landscapes of universal value -Components of a global strategy-*. Gustav Fischer Verlag, Jena. pp. 128-138.
- Naveh, Z. 1994. From biodiversity to ecodiversity. A landscape-ecology approach to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Restoration Ecology* 2: 180-189.
- Naveh, Z. 1998a. Culture and landscape conservation: A landscape-ecological perspective. In B. Gopal, P.S. Pathak, and K.G. Saxena(eds.). *Ecology Today: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Ecological Research*. New Delhi(India): International Publications. pp. 19-48.
- Naveh, Z. 1998b. From biodiversity to ecodiversity-Historic conservation of the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of Mediterranean landscapes. In P.W. Rundel, G. Montenegro, and F.M. Jaksic(eds.). *Landscape Disturbance and Biodiversity in Mediterranean Type Ecosystems*. Springer, Berlin. pp. 23-53.
- Naveh, Z. 1998c. Ecological and cultural landscape restoration and the cultural evolution towards a post-industrial symbiosis between human society and nature. *Restoration Ecology* 6: 135-143.
- Naveh, Z. and A.S. Lieberman. 1994. *Landscape Ecology. Theory and Application*. Springer-Verlag, New York.
- Nilsson, C. and G. Grelesson. 1995. The fragility of ecosystems: A review. *J. Appl. Ecol.* 32: 677-692.
- Odum, E.P. 1993. *Ecology and our endangered life-support systems*. 2nd ed. Sinauer Associates, Sunderland, Massachusetts.
- Peterson, G., C.R. Allen, and C.S. Holling. 1998. Ecological resilience, biodiversity, and scale. *Ecosystem* 1: 6-18.
- Perevolotsky, A. and N.G. Seligman. 1998. Role of grazing in Mediterranean rangeland ecosystems. *BioScience* 48: 1007-1017.
- Pickett, S.T.A. and P.S. White(eds.). 1985. *Disturbance and Patch Dynamics*. Academic Press, New York.
- Rapport, D.J., R. Costanza, and A.J. McMichael. 1998. Assessing ecosystem health. *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 13: 397-402.
- Tilman, D. 1999. The ecological consequences of changes in biodiversity: A search for general principles. *Ecology* 80: 1455-1474.
- Wilson, M.A. and S.R. Carpenter. 1999. Economic valuation of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1971-1997. *Ecological Applications* 9: 751-783.
- Zonneveld, I.S. 1995. *Land Ecology*. SPB Academic Publishing, Amsterdam.

(2001년 5월 8일 접수 ; 2001년 10월 18일 채택)

Cultural Landscape of Korea, Its Entity, Changes and Values Evaluation from New Paradigm

Lee, Chang-Seok and Young-Han You*

Faculty of Environment and Life Science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139-774, Korea

*Center for Ecological Research,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139-774, Korea**

ABSTRACT : A cultural landscape results from a combination of human activities for resource-use and the response of nature to such artificial interference. Nature provides resources necessary for human life on the Earth in terms of his survival as well as living. Humanbeing has developed civilization using the benefits that nature provides. In the past,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mankind and nature had ensured sustainability of resource-use for human. We can find such facts from the existence of cultural landscape. However, rapid economic growth and a development-oriented logic caused from such socio-economic change led to the environmental crises and the depletion of various resources at global level. In the perspective of preparation for such problems, we investigated the background for establishment, function, and value of cultural landscapes, in which a dynamic equilibrium exists between a supply of natural resources and human needs. Furthermore, we discussed a new economic model including ecological consideration, a strategy for ecological management of environment, and a framework for transmission of traditional culture to new generations on the basis of a cultural landscape regime.

Key words : Cultural landscape, Ecological management, New economic model, Resource use, Sustainability
